



최고의 교수진과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환자 최우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이 18개월간의 본관 증축공사를 마치고 환자중심의 경기서남부 대표병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단계 증축을 마친 고려대 안산병원은 기존 600병상에서 700병상으로 병상을 확장하고 더욱 쾌적한 병동생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경기서남부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명의들과 그들의 뛰어난 술기, 최고의 장비, 최선의 진료시스템을 자랑한다.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터라 항상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증축으로 병상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환자들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입퇴원이 가능해져 더욱 빠르고 쾌적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병원은 부족한 병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9개 층의 본관건물에 3개 층을 증축했다. 18개월에 걸친 증축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증축 2단계 '행정동 신축'을 통해 현재 행정부서들이 있는 13층을 병동으로 전환하여 총 850병상규모의 대형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된다. 또한 기존 병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어져 깨끗하고 첨단화된 병실에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밝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의 마음까지 아우르며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이번 본관증축을 시작으로 환자가 더욱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전문센터화 및 외래 재배치를 통해 최상의 진료 시스템을 갖추 계획이다.

질환별 전문센터화 및 외래 재배치는 환자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동선을 최소화하고 한 공간에서 다학제협진이 가능하도록 한 최상의 설계로,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신개념의 진료시스템을 선보인다는 목표 하에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질환별 전문센터화를 통해 제공되는 다학제협진으로 전문성을 더욱 높인 최상의 진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면에 계속

Contents

2p

센터소개

방사선종양학과



3p

칼럼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병



4p

헬스가이드 1

고도비만



4p

헬스가이드 2

오심건



4p

영화소개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5p


독자퀴즈

다른부분찾기



1면에 이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지역중심의료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1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지역 최초 암치료기 래피드 아크도 암환자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여성암 등 다양한 암환자를 치료, 암치료 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암치료 중심병원을 표방하고 내외과 협진을 통한 진단과 치료, 전문성 높은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암치료 등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실현하고 있다. 암치료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로 선정, 신생아 중환자 집중 치료에 있어 경기 서남부의 중심 치료 센터로 인정받았다. 이는 경기 서남부에서 응급의료센터, 내·외과 중환자실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눈부신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지역 내 최고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들과의 경쟁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과감히 도입하고, 최고의 의료진 영입 및 기존 의료진의 해외 우수 의료기관 연수 등 전문인력에 투자했고, 의료사각지대에 끊임없는 의료봉사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상급종합병원 승격, 2014년 본관증축완공에 이어 외래 리모델링, 환자최우선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노력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내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센터소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암을 제거한다

방사선 및 온열 암치료 통해 암세포만 잡는 암 특화치료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대단한 공포의 대상이며 현대의학이 정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다양한 암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방사선종양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악성종양, 즉 암을 치료하는 분야를 말한다. 방사선이 암치료에 이용된 이래로 수많은 방사선 암치료기기들이 만들어졌고 발전해 왔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방사선치료를 권유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살이 썩어들어 간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방사선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오해에서 오는 것들이다. 방사선치료는 제한적이고 정밀한 치료다. 암세포가 있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집중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는 정상 세포들은 방사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운영중인 래피드아크는 3차원 입체영상과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만 집중 공격하고 주위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량을 분산시키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장점을 지닌 최첨단 암 치료장비다. 영상유도치료, 회전세기조절치료 뿐만 아니라 호흡까지 고려한 4차원 방사선 치료, 정위적 방사선 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암세포만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비다. 정위적 방사선 치료란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세포에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암세포만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사진 시뮬레이

터를 통해 암세포의 모든 정보와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래피드아크치료가 결정되면 전 스텝이 모여 정확한 환자정보 파악을 위해 모의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치료가 용이하도록 부위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결정하고, 움직임을 제한할 고정 용구를 제작하며, 환자의 질병과 전신 상태 파악을 위해 치료 받을 부위에 대한 투시 영상을 촬영하거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시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얻어진 투시 영상 혹은 전산화단층촬영 모의 치료장치(CT Simulator) 영상과 함께, 여러 진단 영상(MRI, PET)을 종합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며, 주위 정상 조직에 전달되는 방사선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가능한 한 많은 방사선이 전달되도록 방사선의 에너지, 방사선 조사 방법, 방사선량 등을 결정한다. 모든 계획을 세운 후 환자는 주 5회, 5~20분 가량(1회)으로 30회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고려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윤원섭 교수는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에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다수"라며 "래피드아크는 정상 조직의 방사선 노출을 줄여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

우 부작용 때문에 방사선 암치료가 힘든 경우가 있었지만, 래피드아크로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래피드아크는 일부 암치료에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전체 암환자 중 중증도에 따라 다르지만 뇌종양, 두경부암, 전립선암 등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 암 치료 외에도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암 조직에 열을 가하여 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온도에 민감한 암세포를 40~42 °C 사이에서 추적, 빠르게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해 세포 스스로 죽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적으로 암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하여 암세포의 괴사 및 자연사를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적어 고령의 환자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은 암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고주파온열암치료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암성통증의 개선을 통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부작용과 합병증이 없는 안전한 치료법이다. 특히 항암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이 및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병

하지불안증후군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병 하지불안 증후군이란?

윤호숙씨(45세, 여)는 20년 전부터 자려고 누워있으면 양쪽 다리 안쪽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불편한 느낌이 있어 잠들기 힘들었고, 오래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힘들었다. 이럴때 다리를 주물러주거나 심할때는 마루에 나가 걸어다니면 그 순간 증상이 없어졌지만, 자리에 누우면 다시 증상이 나타난다 하였고, 자다가라도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 때가 많았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지만 증상이 점차 심해져 들른 몇몇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며 약물을 복용하고 신경주사를 맞아보기도 하였지만 별로 호전이 없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진료와 검사 후 하지불안증후군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한 후부터는 고통 없이 잠들 수 있었다.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RLS)은 양쪽 다리, 특히 종아리 부근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느낌으로 가만히 누워 잠을 자는데 주로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대표적인 증상은 1. 야간에 심해지는 2. 다리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한 감각 증상(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스물거림, 안에서 터질 것 같은 느낌, 옥죄는 느낌, 전기가 흐르듯 저릿저릿한 증상이나 불편한 느낌)이 있고 3. 휴식 중 또는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주로 발생되며, 4. 움직이거나 활동 또는 주물러주면 증상이 사라지거나 호전되는 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주로 낮보다 저녁에 증상이 더 심하여 움직이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잠들기가 힘들게 만들거나 수면 도중에도 자주 깨게 만들어 결국 수면부족이 동반되어 피로회복이 되지 않아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게 되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유병율, 얼마나 많은가?

1)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80% 이상이 주기성 사지운동증(수면 중 자면서 다리를 떼거나, 갑작스레 움찔거리는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고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는 중년 이후의 환자이고 남녀 모두 나타나지만 여자가 약간 더 많으며, 대체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2) 외국에서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유병율을 조사한 보고는 2.5%-15%까지 매우 다양하나, 의사가 환자 모두 질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초기 진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에 필요한 기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장애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을 진단받는 환자에서 초기에 주로 오해 받는 질환은 허리 디스크, 말초혈액순환장애, 불면증 등으로, 이러한 경우 진단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증상이 원래 그러려니 하면서 괴롭히지만 수 십년간 참고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소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소아에서는 성장통이나 주의력 결핍장애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 성장통이라고 간단히 넘겼던 아이들의 상당수가 소아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일차성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중 50%이상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 가족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

이 증후군의 근본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일차성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중추 신경계의 도파민 활동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차적 원인으로는 철분 결핍성 빈혈, 콩팥 기능저하, 알코올 중독의 경우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피로하거나, 카페인 음료 섭취, 온도가 높거나 추운 곳에 오래 노출될 때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원인들 중에서 주로 철분 결핍과의 관계가 제기되면서, 철분이 이차성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이 알려졌다. 철분은 도파민의 전구물질인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변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하며, 주요 증상의 일증주기와 혈청 철 변



화의 일주기가 일치한다. 연구에서는 뇌의 철 저장량이 감소했거나 대뇌의 철분 이용도의 이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 및 감별진단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은 임상적인 증후군으로 위에서 설명한 다음 4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다리의 불편한 감각과 함께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욕구(urge)를 느끼며, 둘째, 불편한 감각 혹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가만히 있을 때 시작되거나 심해지며, 셋째,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무르면 불편한 감각과 욕구가 줄어들며, 넷째, 증상이 저녁이나 야간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족력이 있고 치료에 반응을 보이며, 야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하여 주기성 사지운동증의 소견이 관찰하는 것이 진단을 내리는데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은 주관적 증상기술과 문진에 의해서 1차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증상을 주로 보이는 기타 다른 질환과 명확히 감별해야 합니다.

하지 불안증후군을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말초 신경병증, 하지 정맥부전, 임파부종, 혈액순환장애, 근육통 등으로 오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은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면 호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 치료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철분농도, 간기능, 신장기능, 소변검사, 내분비검사, 혈당검사 등의 혈액 검사가 필요하며, 신경전도-근전도 검사도 말초 신경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또한, 동반된 다른 수면질환을 진단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치료

치료는 먼저 증상의 경증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치료 방침을 정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밤에 가끔 나타나는 경우는 약물 치료 보다는 비약물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비약물치료로는 수면 전 발 및 다리 마사지, 족욕, 가벼운 운동(걷기, 스트레칭, 체조) 등이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하지불안증후군의 전문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치료제로는 우선 철분 결핍이 확인되면 철분제제를 투여하여 철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고, 도파민 제제는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법으로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 개선에 신속하고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대개 1-2 주 이내에 상당한 호전을 보입니다. 약의 용량은 파킨슨병에 사용하는 용량의 1/4-1/2 정도의 소량으로 일반적으로 잘 조절되지만, 장기간 도파민제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에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단을 받은 환자는 수면 전 술, 담배, 커피등의 기호식품에 의해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 | 신경과 권도영 교수

맞춤치료로 재발없이 건강 되찾는다

고도비만

비만이 생활에 여러 불편함을 주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도비만인 40세 남자가 같은 나이의 정상인에 비하여 평균생존기간이 15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도비만이 지속된 기간에 비례하여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협심증 및 심근경색, 관절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폐색전증, 불임, 역류성 식도염 등 수많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고도비만은 보통의 비만과 달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극복에 성공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도비만은 외과적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며, 특히 고도비만의 장기치료효과는 다른 치료법보다 수술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고도비만의 치료는 외과와 내과, 가정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를 통한 관리가 이뤄져야하므로 협진시스템이 잘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치료의 안전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도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량 지수가 37kg/m² 이상인 경우, 체질량지수가 32~37kg/m² 이면서 당뇨, 수면무호흡증, 비만관련 심장질환, 관절질환 등 비만관련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식이요법 및 약물치료 등에 실패한 경우에 주로 수술이 권장되며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고도비만수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말 | 상부위장관외과 김종환 교수



지긋지긋한 중년의 어깨 고질병

오십견



오십견은 오십대에 온다고 해서 붙여진 동결견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어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하며 심한 통증이 특징인데, 오십견은 어깨의 관절낭이 염증을 일으켜 유착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염증이 심하면 관절낭이 섬유성 변화를 일으키고 굳게 되어 잘 움직일 수 없고, 굳은 관절 자체가 다시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으며 머리를 빗는 등 일상생활의 가벼운 동작에서도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오십견은 어깨의 무리한 사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1) 당뇨병, 갑상선 질환, 부신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 2) 심폐질환, 목 디스크, 뇌출혈, 상지 골절, 파킨슨씨병과 같은 외인성 질환, 3)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파열, 상완 이두건 건염, 석회성 건염, 견봉쇄골관절 관절염과 같은 내인성 질환 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은 목디스크나 회전근개질환 등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되기 쉬운데, 이들 질환을 오십견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말 | 정형외과 박정호 교수



IQ 800, 타임머신 발명! 이런 강아지 본 적 있나?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는 천재 강아지 피바디와 그의 파트너 셔먼이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노벨상 수상자이자 다양한 발명부터 요리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천재 강아지 피바디와 천방지축 파트너 '셔먼'의 모습은 각기 다른 개성으로 귀여운 매력을 선사한다. 여기에 우연히 타임머신의 정체를 알게 된 셔먼의 친구 '페니'와 '셔먼', '피바디'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이집트부터 트로이 목마, 프랑스 혁명 등 역사적 사건 현장을 오가

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위인들을 만나는 모습은 시간여행이라는 색다른 소재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또한 시간여행의 실수로 과거의 인물들이 현대로 오자 이를 막기 위해 '피바디'와 '셔먼'이 나서는 모습은 그들이 펼칠 활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타임머신을 타고 각기 다른 나라와 시대로 여행을 떠나는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와 셔먼의 유쾌하고 신나는 모험은 탄탄한 스토리와 상상을 뛰어넘는 신선한 발상으로 짜릿한 재미와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다. 

언론에 비친 안산병원

2014년 1월 ~ 2월

- 주 2회이상 음주 간손상 -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 - 헤럴드경제 - 1월1일
- 알아도 못 피하는 노인 낙상 막으려면 - 비뇨기과 배재현 교수 - 중앙일보 - 1월7일
- 맥주는 통풍유발자 - 류마티스내과 최성재 교수 - 헤럴드경제 - 1월7일
- 스마트폰 · 태블릿 PC의 역습...10대 목 디스크 환자 50% ↑ - 직업환경의학과 김대성 교수 - 중앙일보 - 1월7일
- AI 발생 '지나친 우려'는 기우...주의는 필요 -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YTN 뉴스 - 1월 18일
- "아직 취직 못했어? ... 어느 대학 갔니?" 이번 설에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 서울경제 - 1월29일
- 입학 앞둔 내 아이... 시력 · 치아 · 배변습관 체크하셨나요 - 소아청소년과 김윤경 교수 - 서울경제 - 2월7일
- 유방암 환자 사연 - 유방내분비외과 장영우 교수 -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 2월 13일
-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급성심근경색, 24시간 대비 체계로 소중한 생명 지킨다! - 순환기내과 송우혁 교수, 안정천 교수, 임상엽 교수, 응급의학과 문성우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17일
- 파킨슨병,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로 건강한 삶 유지한다 - 신경과 권도영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17일
- 장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장기이식 - 간담체외과 송태진 교수, 소화기내과 서상준 교수, 신장내과 차대룡 교수, 흉부외과 신재승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18일
- 신생아의 맞춤형 진료 실현 '치료부터 건강까지' - 소아청소년과 최병민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19일
-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이비인후과 이승훈 교수,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20일
- 소화기 내시경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 소화기내과 구자설 교수, 소화기내과 현종진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21일
- 불임, 철저한 진단으로 맞춤형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산부인과 이경옥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21일
- 고려대 안산병원,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도입 - 방사선종양학과 윤원섭 교수 - 파이낸셜뉴스 - 2월21일
- 고대 안산병원, "신속한 진단과 치료로 생존율 높이고 후유증 낮춘다" - 신경과 정진만 교수, 신경외과 임동준 교수, 재활의학과 김동휘 교수 - 스포츠서울 - 2월22일
-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광선각화증' ...노년층 환자 많아 - 피부과 김일환 교수 - 국민일보, 경향신문 - 2월24일

독자퀴즈

독자퀴즈! 다른부분찾기



지난호 정답



두 사진에서 다른 부분(총 7군데)을 모두 찾으시고 홍보팀에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소속:

전화번호:

직종:

가장 좋았던 기사 또는 코너는?

성명:

독자의 목소리

2013년 안산병원 QI & CI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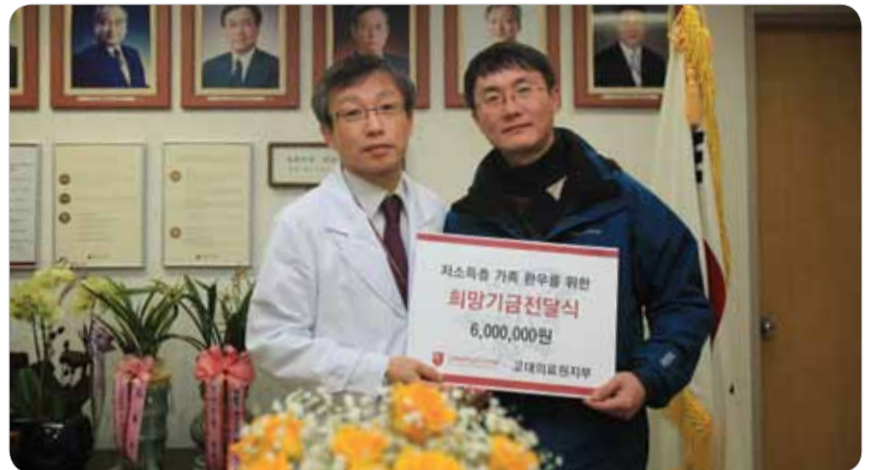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2월 13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고객 만족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201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QI & C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차상훈 병원장, 김운영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송태진 연구부원장, 최원석 감염관리실장, 성화정교수 적정진료관리위원, 이경진 간호실장 등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QI 및 CI 활동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QI 구연 및 포스터는 적정진료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사전심사를 통해 QI 구연발표 부문에 8팀, 포스터 발표 부문에 4팀, 지면발표 부문에 2팀으로 선정되었으며 CI구연발표팀은 지표 최종보고회를 통해 22개 팀 중 4팀이 구연발표 부문에 선정되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차상훈 병원장은 축사에서 "의료의 성장과 더불어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산병원에서도 전 직원이 주축이 되어 질향상 도모를 위해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운영 적정진료관리위원장은 "올 해 '의료기관재인증'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우리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즐기는 문화를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원 친절교육 및 4기 친절리더팀 간담회



지난 1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병원 대강당에서 '전직원 친절교육 및 4기 친절리더 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박미연 팀장의 '2013년도 4기 친절리더 활동보고'와 러너코리아 이소정 강사가 진행하는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주제로 전직원 친절교육이 이어져 재미와 참여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 교육에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014년도 친절리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환자위한 노조 기부금 전달 받아



안산병원은 1월 22일 병원장실에서 고대의료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바자회 수익금으로 얻은 600만원을 기부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차상훈 병원장, 서성구 경영관리실장, 이정진 간호부장, 서권영 총무팀장을 비롯해 김진용 노조지부장, 조현중 사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진용 노조지부장은 "노조에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전성금으로 만든 사랑의 쌀 238포



안산병원은 1월 23일(목) 안산시청 내 시장실에서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1년동안 모아온 '끝전성금'으로 마련된 쌀 238포(10kg)를 안산시청에 전달했다. '끝전성금'은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급여 및 상여 실지금액의 1천원 미만 금액을 기부로 마련되는 나눔 문화로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상훈 병원장은 "쌀을 맞이해 받는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좋은 문화를 많이 만들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은 앞으로도 끝전성금, 지역의료봉사활동, 코시안의 집 후원 등 지역사회를 밝히기 위한 사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Mobile 고대병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 - <http://m.kumc.or.kr>



KU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2014년 간호부 수간호사 워크숍



고대안산병원 간호부(간호실장 이경진)는 지난 2월 17일 별관 소강당에 수간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차상훈 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간호부는 병원 내에서 가장 큰 맨파워를 가진 부서이다. 특히 간호부 신년 사업 목표는 환자 안전과 병원 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워크숍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경진 간호실장은 "2014년은 고대안산병원의 병동증축과 병원신입평가, 의료기관 재인증 등 수많은 도전과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다. 그 어느 해보다 간호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간호부 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4팀으로 구성하여 '도전, 혁신, 변화, 화합, 안전'이라는 주제로 안산병원 발전에 기초를 만드는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

따뜻한 '초록나눔'으로 활기찬 병동생활



2014 정부 연구개발 교원대상 설명회



고려대 안산병원은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 별관 소강당에서 융복합 연구협력기관 및 기업 연구자를 초청해 '2014 정부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려대 안산병원의 연구자들 뿐 아니라 한국전기연구원 첨단의료기기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양대ERICA캠퍼스를 비롯한 여러 융복합연구기관과 의료기기, 제약관련 기업에서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관심 분야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모든 R&D 관련 부처가 올 한 해 동안 실시할 연구개발 사업을 융복합연구, 컨소시엄 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자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안산병원 연구관리팀의 튼튼한 가교역할로 안산병원과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등 4개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 뜻을 모아 앞으로의 큰 결실이 기대된다. 차상훈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국가적, 사회적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료기관 또한 과거와 달리 이러한 R&D의 미충족수요,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 그리고 임상시험이 이뤄지는 의생명과학 R&D의 허브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2월 14일 오후 3시에 63병동에 입원 중인 환아들을 대상으로 '초록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산병원이 투병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환아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초록지기들과 안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10여명의 환아와 보호자들은 차상훈 병원장, 이경진 간호실장, 초록지기들, 안산시농업기술센터 강덕형 영농소득계장 등과 함께 투명컵 토피어리를 만드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토피어리는 차질 몸과 마음이 지치지 쉬는 투병기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직접 식물을 가꾸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

의학발전기금 용도

- 발전기금 :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발전을 지원합니다.
- 자선기금 : 희귀난치성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장학기금 : 열의와 실력을 갖춘 우수한 의과대학생을 지원합니다.

기부자 예우

- 학교시설 이용 및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며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상 기부자는 존함을 의대 및 각 병원 기부자벽에 새겨 그 고귀한 뜻을 영원히 간직합니다.



문의처

고려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팀
 TEL 02-920-5907
 FAX 02-920-6200
 E-mail : donation@kumc.or.kr

기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열정' 을 가진 분들의 몫입니다



진료예약센터 1577-7516
응급의료센터 : 031-412-538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래 진료시간표

* : 선택진료 의사
기준일 : 2014년 4월 14일
http://ansan.kumc.or.kr

Table with columns: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 진료 분야. It lists various medical departments such as Internal Medicine, Pediatrics, and Surgery, along with the names of the attending physicians and their specific clinic hours.